

I. 中長期 에너지需給展望과 精油産業의 長期課題

84年度 石油政策方向

石油政策方向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中長期的인 에너지수급전망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키 위한 精油産業의 長期課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의 安定需給基盤을 구축하고 低廉한 에너지의 도입증대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寄與한다는 목적하에 에너지정책방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石油依存度減縮의 지속적 추진은 대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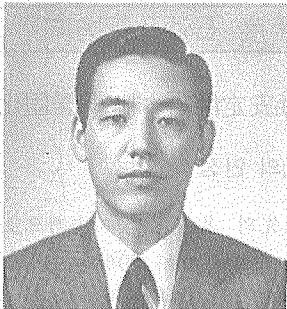
- (1) 石油代替發電源의 확대노력 지속
 - 原子力, 石炭, 水力중심의 발전소 건설
 - 기존 石油火力발전소의 연료전환
 - 발전소의 国内無煙炭 사용확대
- (2) 産業체에서의 有煙炭 사용확대
 - 纖維, 製紙等 熱多消費業種에 主로 보급
 - 仁川·蔚山 石炭專用부두건설 및 石炭供給基地 설치, 운용
- (3) 태양에너지 개발보급 추진
- (4) 메탄가스 이용
 - 産業用部門: 酒精工場의 廢찌꺼기로 메탄가스 생산 이용
 - 畜産農家用: 大型畜産農家に 메탄가스 발생시설 보급
- (5) 기타 風力, 小水力의 활용 등으로 大別될 수 있다.

이러한 石油依存度감축의 지속적 추진으로 中長期的인 石油수급의 모습은,

- (1) 總에너지中 石油비중 저하(83年 56.5→2001年 38.1%)
 - 절대소비량은 1.9배로 증가하여 2000년대 世界石油는 최소 5百万B/D 부족 예상
- (2) 輕質油와 重質油 비율 변화(83年 52:48→2001年 84:16)
- (3) 가스사용량이 9.8배 증가된 854万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적절히 대응키 위하여는,

- (1) 石油소비절약 시책을 적극화하고, 石油安定供給体制을 구축해야 하며,
- (2) 重質油分解施設을 적기 보완하고,
- (3) LPG導入先의 多邊化 및 2단계 LNG 사업을 추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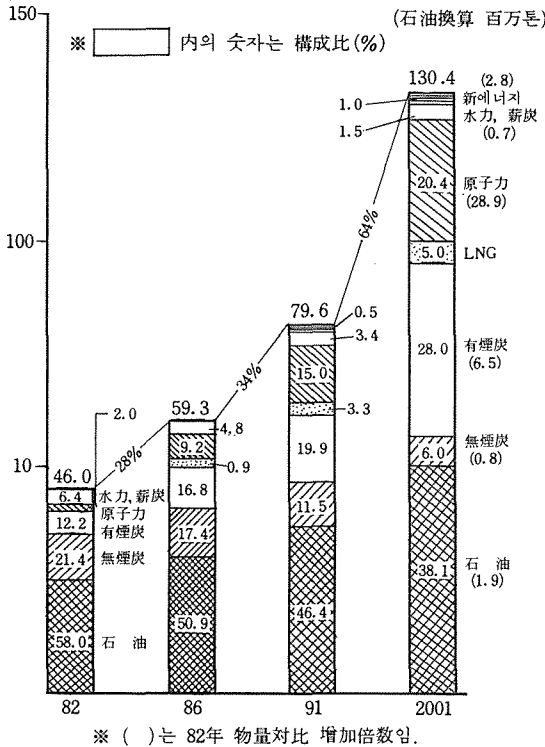
尹 秀 吉

〈動力資源部·石油調整官〉

- (4) LNG利用産業 및 設備投資의 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 (5) 가스安全管理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需給展望)

	82-86	87-91	92-96	97-2001
○GNP成長率 (%)	7.5	7.1	6.7	6.7
○에너지消費增加率 (%)	5.2	6.1	5.2	4.9
○輸入依存度 (%)	79.0	84.7	88.0	91.5



II. 最近의 國際石油情勢와 石油政策方向의 概要

1. 國際石油 情勢

○83년초 國際原油價 인하에 따른 世界景氣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各國의 石油代替 努力이 지속되고 있어 自由세계 石油수요는 84年中 2~3%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 自由世界石油수요:

81	82	83	84
47.0	45.5	44.3	45.1

 (百萬B/D)

○OPEC (石油輸出国機構) 가 剩餘生産能力을 보

유하고 있어 石油需給은 돌발사태가 없는 한 今年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原油價도 現水準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81	82	83	84
• 非OPEC生産量 (百萬B/D)	23.4	24.7	25.5	26.2
• OPEC生産量(%)	23.5	19.8	18.2	18.9
• OPEC占有率(%)	50.1	44.5	41.6	41.9

2. 石油政策方向의 概要

이러한 石油수급 및 價格안정 이외에도 物가안정 및 노동생산성 제고에 따라 換率도 安定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4년의 石油政策은 이러한 安定세를 적극 활용하여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한 政策정립에 주력함과 동시에 돌발적인 石油危機에 대처할 수 있는 彈力的인 政策手段의 강구로 대별될 수 있다.

○시장경쟁의 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제고 및 石油안정공급체제의 鞏固化를 통하여 物가안정에 기여하고,

○신규시설투자소요와 遊休施設의 活用을 연계 검토하여 外債감소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며,

○가스의 適正普及과 安全管理의 강화 및 石油製品의 품질개선을 통하여 國民의 文化생활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III. 84年度 石油政策方向

1. 石油安定供給체제의 鞏固化

1) 石油의 安定적 확보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6년에는 中東依存度가 60%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石油安定基金에 의한 獎勵金지급 등 多邊化誘引施策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82	83	84
• 中東依存度(%)	76	74	68
• 東南亞(%)	12	15	19
• 其他(%)	12	12	13

- 우발사태에 대비한 수급대책을 강화할 것이다.
 - 非常時 石油需要 감축방안을 구체화하고,
 - 原油契約時 비상시의 특별고려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 友邦[터과]의 비상시 협조체제를 추진할 것이다.
- 또한 油田개발을 착실히 추진하여 2000년에는 自主供給率이 1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경제적인 對象鉅區를 확보하고 資源제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5鉅區 물리탐사를 3,000km까지 실시하고 外[외]회社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韓·日共同開發區域內 5小区의 1個孔을 시추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民間企業 주체의 콘소시엄方式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成功拂 融資方式로 지원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 西[서]마두라 油田개발은,
 - 가스田에 대하여는 경제적 可採量에 대한 用役評價를 실시한 후 생산준비단계에 착수하고,
 - 油田은 既發見油田의 평가를 토대로 追加試鉅를 검토할 계획이다.

2) 備畜事業의 추진

○ 민간비축의 증대를 도모하고, LPG 備蓄事業을 신규로 추진하는 외에 備蓄油의 경제적 管理運用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3) 貯留시설 및 工程管理의 고도화

○ 輕質油 수요증가에 대비한 重質油分解施設의 설치를 추진하고 노후시설改替 등 에너지節約型 工程管理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4) 長距堆 送油管 건설계획의 검토

○ 유통비용 절감 및 物動量 증가에 따른 수송수단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麗水~서울間, 蔚山~大田間의 送油管 建設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할 것이다.

2. 油價制度改善의 장기방향 설정

81년말부터 研究, 검토되어온 油價管理制度의 개선방안은 現行油價制度를 20년간 長期運用할

에 따른 부작용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石油類가 에너지供給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石油類의 連產品的 特性을 고려한 수급안정이라는 命題때문에 보다 충분한 검토와各界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릇 가격이라는 것은 原論的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수급균형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資源의 最適配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現實經濟를 觀照하여 보면, 공급자, 수요자 및 유통단계가 모두 寡占狀態에 있으며, 石油類의 輸入自由化는 低價製品만의 輸入選好를 조장, 수급안정기반의 손상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油價制度改善은 石油政策 차원에서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經濟全般에 자율경제원리가 定着되고 일부 油種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 이상 지속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3. 文化生活의 증진

1) 石油製品품질향상 및 低公害油 보급확대

○ 低硫黃油供給을 증가시키고,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低硫黃油는 83년중 B-C油 33%, 輕油 35%에서 84년에는 B-C油 39%, 輕油 43%로 확대공급할 것이며, 대상지역도 늘릴 것이다.

2)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便宜度 높은 가스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84년의 LPG 供給量은 16%가 증가한 1,035千톤에 달할 것이다.

LPG 수요급증에 따라 LPG導入先의 多邊化와 長期低價導入을 위한 도입계약의 選別許容과 LNG사업의 工期內 완벽한 시공을 86년 12월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都市가스사업과 LNG사업을 連繫推進하기 위하여 都市가스의 용도별 요금체계를 정립하고, 韓國가스公社 및 都市가스事業者와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84 LPG 供給計劃)

	83	84	增加率(%)
供給(千톤)	892	1,035	16.0
生産	541	555	2.6
	351	480	36.8

4. 가스安全管理의 定着

	(事故趨勢比較)			
	韓 國		日 本	
	79	82	79	82
LPG消費量(千噸)	289	641	14,178	15,700
事故發生件數 (10萬噸當)	11 (3.8)	28 (4.3)	580 (4.0)	1,020 (6.5)

○自律管理体制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시설·容器·用品에 대한 공급자의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유통단계별 책임한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다.

- 容器 충전시설을 현대화하고,
- 容器的 소유 및 관리책임을 一元化하며,
- 計量器에 의한 容量制供給 計酬配達制를 실시할 것이다.

○施設·容器·用品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다.

- 가스施設 施工管理者의 자격제를 실시하고,
- 容器·用品의 규격화 및 品質保障表示를 의무화할 것이며,

○이외에도 教育·弘報活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스需要增加에 따른 事故發生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 產油國動向 □

늘고있는 蘇聯과 OPEC의 바터去來

蘇聯이 對西方石油輸出을 계속 증대시킴으로써 OPEC을 난처한 立場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이 이같이 石油輸出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아닌 OPEC의 일부 會員國들에 힘입은 것이다.

蘇聯은 주로 自國產製品를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에 수출하고, 그 댓가로 그들의 原油를 획득, 이를 핀란드의 製品과 바터去來 하거나 혹은 美貨를 얻기 위해 現物市場을 통해 再販賣하고 있다. 이같은 蘇聯의 三角貿易은 共產圈經濟에 정통한 WEFA 및 石油會社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WEFA는 최근 報告書를 통해 83년 한해동안 蘇聯이 中東產原油를 25만B/D이나 再去來했다고 하면서, 이같은 물량은 世界全體的 石油交易量에 비해 사소한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石油市場의 弱勢가 오래되면 그 영향은 커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WEFA가 밝힌 83년도 對蘇바터去來量을 國別로 살펴보면 리비아가 12.4만B/D, 이란이 5.4만B/D, 이라크가 3.8만B/D 등이다.

리비아등의 일부 OPEC會員國들이 이처럼

蘇聯과 바터去來를 자행하는 것은 原油販賣難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美國메이저의 한 關係者는 리비아가 만약 바터去來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物量을 地下에 묻혀 두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리비아는 原油를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1979년 210만B/D까지 달했던 리비아의 產油量은 현재 OPEC 쿼터 110만B/D를 약간 상회하는 120만B/D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蘇聯이외에 中共도 일부 OPEC會員國들과 바터去來를 통해 OPEC產原油를 획득하여 他地域에 再販賣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OPEC會員國들의 바터去來가 OPEC의 總生產上限線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바터去來에서의 原油價格이 割引된 것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는 OPEC協定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中東產油國들은 리비아를 비롯한 일부會員國들의 이같은 바터去來를 그들의 產油量을 증대시키려는 方便의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